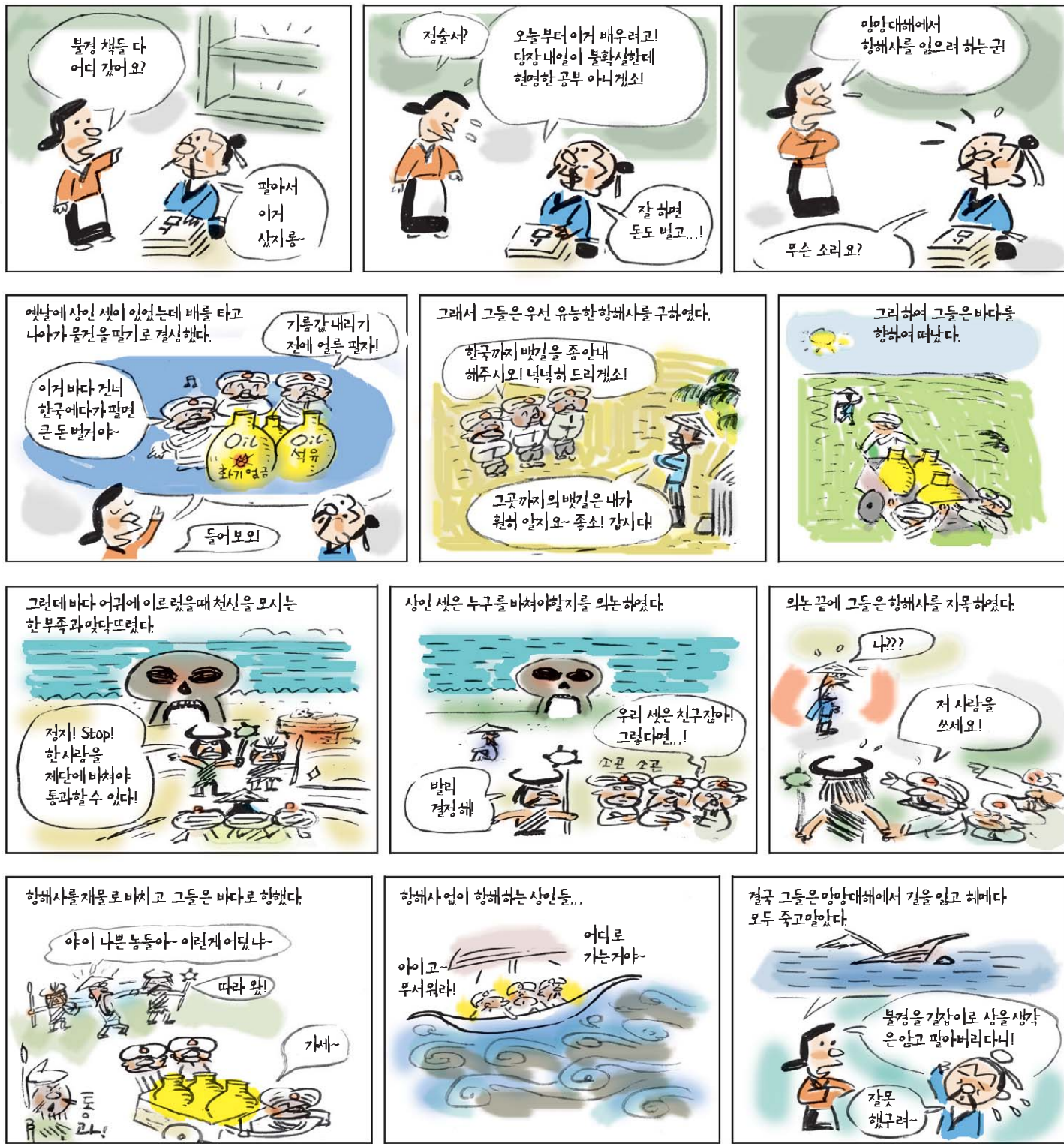


울릉 보살 불동 거사 <2>



상인들의 어리석음 [백유경(百諭經)]

옛날 어떤 상인들이 큰 바다를 향해 가게 되었다. 바다를 향해가면 반드시 길잡이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길잡이를 한 사람을 구했다. 길잡이를 따라 바다로 나가는 도중에 넓은 들만에 이르렀다. 거기는 천신(天神)을 모시고 제사 지내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사람을 죽여 천신에게 제사한 뒤에 비로소 지나갈 수 있었다. 상인들은 서로 의논했다. "우리는 모두 친한 친구다. 어떻게 죽이겠는가. 오직 저 길잡이가 제물에 적당하다." 그들은 곧 길잡이를 죽여 제사를 지냈다. 그런데 제사를 마친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다가 마침내 지쳐서 모두 죽고 말았다. 모든 세상 사람도 그와 같다. 법의 바다에 들어가 그 보물을 얻으려면 좋은 법의 행을 길잡이 삼아야 한다. 하지만 도리어 선행을 부수고 생사의 넓은 길에서 나를 기약 없이, 세 가지 길(三惡道)을 돌아다니다니 하면서 한없는 고통을 받고 있지 않은가?



옛 광화의 세계

사부대중의 완성 야사의 득도

불암사판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삽화 중에 한 장면으로 출가수행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첫 출가자가 된 야사와 그의 친구 55명의 집단 출가, 아들 야사를 찾아 나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처음으로 삼보에 귀의해 재가신도가 된 야사 아버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야사의 아버지 구리가 장자가 최초의 우바새가 되면서 승가가 완성되는 기념비적인 장면이다.

이 삽화 속에 등장하는 야사의 아버지 구리가 장자는 부처님 앞에 앞도려서 부처님께 제자 되기를 청하고 있다.

"위대하셔라, 세존이시여, 위대하셔라, 세존이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듯이,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듯이, 길을 잃고 헤매는 자에게 길을 가르쳐주시듯이, 혹은 '눈이 있는 자는 보라' 하고 어둠속에서 등불을 밝혀주시듯이,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밝혀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세존께 귀의하여 받들고자 합니다. 또, 세존의 가르침과 승단에 귀의하여 받들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를 재가신도로 받아주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목숨이 다하기까지 귀의합니다."

모든 불자들이 초발심을 내어 부처님께 수계 받을 때의 심정이 바로 구리가 장자가 부처님께 간절히 서원 올리는 그 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를 돌아보면 간절했던 초발심의 서원은 어디로 가고 습관적인 신앙심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구리가 장자의 서원을 읽어 본다던 수계 받을 때의 초발심으로 돌아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 삽화에서 하나 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구리가 장자의 출가로 인해 승단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다. 출가수행자와 재가수행자가 모여 진정한 승단이 이루어진 것이다. 불교승단이 승가라고 한다. 승가는 화합대중을 뜻한다. 모든 승단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화합하라는 뜻이다. 우리시대의 가장 큰 화두로 화합과 소통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부처님 제세시로 돌아가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서로 존중하는 자유스러운 소통을 통해 화합하는 승가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석씨원류(石氏源流) 중 사부대중(沙部大衆) 불암사판 1673년(간행) 판권(半部) 27.2×18.0cm

선학 스님(영주소고편화박물관장)

허허당의 세상만사



■ 방학각

눈을 내리고
바지를 내리고
똥을 내린다.
아,
모든것을 내리고 보니
마음이 한가롭네.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은 스님, 불자님들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기 위하여 평촌에 사무실을 개설하였습니다.

부처님 법이 곧 마음법이어서 생활하시는데 걸림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세속의 생활은 마음먹는데로 흘러 가지 않아 각종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이 있고 또한 현실이 그러합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서안은 부처님 법을 받들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마음편히 스님, 불자님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서안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변호사 강영화·김기현 합장

법률사무소 서안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왕동 1597 한양월드빌 206호
강영화 변호사 | 031)436-3114 | 010-7504-4521
김기현 변호사 | 031)436-3054 | 017-535-0685

인삼마켓

www.insammaket.com

귀하고 고마운 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취급품목 : 홍삼액, 홍삼정, 홍삼편, 인삼, 홍삼청국장, 캔디, 제리, 분말

홍삼생식
학명은 파낙스 진생(Panax : ginseng)은 만병통치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인삼의 효능이 최고조에 이르는 인삼만을 선별하여 곱걸질을 벗기지 않은 채로 숙성합니다. 즉 인삼겉질의 바로 안쪽에 많은 망상조직이 존재하는데 홍삼은 이와같이 유효성분을 가지고 있는 표피부분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포닌이 축적되어 효능이 우수합니다.

이런 홍삼을 액기스 추출과정에 90℃이상 고열로 추출하면 쓴맛과 검은색을 띠나 홍삼의 고유한 사포닌 성분과 향기가 많이 소멸되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여 특수한 제조방법으로 저온에서 72시간 이상을 숙성 발효시켜 만든 제품으로 홍삼 고유의 향기와 색깔을 유지하며 홍삼에 은은한 맛과 달라지는 건강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풍기인삼은 아래서 좋습니다

- 약탕기에 끓여 재탕, 삼탕을 해도 물렁하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 같은 분량을 달어도 다른 인삼보다 농도가 훨씬 진합니다.
- 인삼을 넣어도 방문만 열어도 향기가 짙게 납니다.
- 육질이 탄탄하여 중량이 무겁고 약효가 뛰어납니다.

저희 풍기정품인삼제조장은 양심을 속이지 않는 정품만을 생산합니다.

영농법인풍기정품인삼제조창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 241-2번지
TEL 054)636-2174 FAX 054)638-2177